

“가요보다 국악이 좋아요”

따분하고 조급은 멀게 느껴지던 국악이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왔다.

휴대전화 벨소리 등 다양한 국악 음원이 개발되고, 인터넷을 통해 국악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또 국악 체험과 공연 관람이 어우러진 1박 2일 문화프로그램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휴대전화 벨소리, 통화 연결을 수상 음악 절기 음악 등 100여곡에 달하는 국악 음원을 새로 개발, 모두 260 건의 음원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휴대전화 벨소리는 40곡은 이번 서비스만 위해 짧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감각으로 전부 새로 만든 곡으로 ‘까불까불’ ‘아리랑 하우스’ ‘멋은 데리트’ ‘폐종신계의 꿈’ ‘에코시티’ 등이 대표작이다.

또 수약 음악 10곡, 절기음악 10곡도 1년에 걸쳐 창작·개발한 음원이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은 시조, 산조, 시나위, 사물놀이, 판소리의 한 대목까지 다양한 장르를 담고 있다.

음원은 국립국악원(www.ncktp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최근 온라인 국악 교육 전문 사이트인 ‘e-국악아카데미’(www.egugak.go.kr)도 개설했다.

e-러닝 전문 기업인 (주)크레듀와 함께 개발한 ‘e-국악아카데미’는 그동안 국립국악원을 직접 찾아와야만 했던 국악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악기 알아보기’는 초·중·고생들

■ ‘국악이 생활속으로’ 대중화 움직임 활발

국립국악원, 휴대전화 벨소리 무료 서비스

남도국악원, 주말 ‘남도전통문화탐방’ 확대



남도국립국악원이 매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남도전통문화탐방’은 국악체험과 명승지 관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을 위한 콘텐츠다. 대금, 가야금, 해금 등 다양한 우리 악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 볼 수 있는 과목으로 친숙한 캐릭터가 등장해 연주법, 종류, 역사 등을 소개한다.

‘우리 음악 갈라잡이’는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음악 이론인 12율명, 장단, 정간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콘텐츠다. 일반인을 위한 콘텐츠도 마련돼 있다. ‘우

리 음악 보고 듣기’는 민속 음악, 궁중 음악 등 다양한 국악곡의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고 다양한 공연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진도에 위치한 남도국악원이 진행하는 ‘남도전통문화탐방’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국악의 멋을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도국악원 개관과 함께 시작된 ‘남도전통문화탐방’은 금~토요일 1박 2일 동안 월 2회 진행됐던 프로그램으로 매 기수마다 신청자가 쇄도해 을해부터 주 1회로 확대 편성했다.

참가자들은 금요일 오후 국악원에 도착, 국악원 진입당에서 열리는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강강술래·진도 아리랑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날에는 운립선방·신비의 바닷길 등을 둘러본 후 진도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도요민속여행’ 공연을 관람한다. 2인실 기준으로 참가비는 5만7천원(숙박·2인 3끼 식사 포함)이다. 문의 061-540-4042.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누구나 판소리 한 자락씩은 부를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교육청은 을해 중점 사업으로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를 진행한다. 교육청은 교사 대상 판소리 지도법 연수를 진행하고 판소리 음향 DVD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또 11월에는 ‘판소리 한대 목 부르기’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또 5천만원(시비 3천500만원)을 투입, 전통문화예술 관련 특성화 학교 5곳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권기수 작 ‘BlackForest-Seven’

광주시립미술관 하계U대회 유치 기원 신춘기획전

새희망, 봄날은 간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일~5월14일까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개최를 기원하는 신춘기획전을 갖는다.

양증맞은 캐릭터를 등장시켜 독특한 팝아트를 추구하고 있는 권기수씨가 ‘BlackForest-Seven’을, 디지털 한국화로 주목받고 있는 이이남씨가 ‘자연으로부터’를 선보인다.

전시 공간도 짧은 시절(봄)을 그리워하며, 새 희망을 꿈꾸는 중년(가는 봄)을 형상화했다. 입구 전시실에는 움직임 있는 설치 작품을 배치해 초봄의 생동감을 살렸고, 중간에는 각 작품이 배출하는 강렬한 색감과 조형미를 살려 만개한 봄을 표현했다.

또 출구에는 따뜻한 느낌의 작품을 전시해 짧은 시절은 갔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중년의 모습을 그렸다.

양증맞은 캐릭터를 등장시켜 독특한 팝아트를 추구하고 있는 권기수씨가 ‘BlackForest-Seven’을, 디지털 한국화로 주목받고 있는 이이남씨가 ‘자연으로부터’를 선보인다.

한편 전시에 앞서 20일 오후 4시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개최 기원 퍼포먼스와 작은 음악회 등이 결들여진 개막식이 열린다.

/오페론기자 kroh@kwangju.co.kr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수문 패총 유구 모습. 원안은 유리질 찌꺼기인 슬래그(slag).

광주 문진위-日 북해도 문화재단 협정

홋카이도미술관 소장 인상파 展 등 연극·음악·미술 교류



KBS ‘FM 실황음악회’ 공개 방송 … 22일 음악감상실 베토벤

KBS 라디오의 ‘FM 실황음악회’(매일 오후 8시~10시·김신환 PD)가 진행하는 ‘EBU 라이브 스페셜’ 특집 공개 방송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음악감상실 베토벤(전 남도청 앞 금향빌딩 6층)에서 열린다.

실황음악회는 KBS가 유럽방송연맹(EBU)과 제휴해 세계 각지의 연주회 실황을 입수, 최고 음악가들의 가장 최근 모습과 연주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실황음악회 코너 중 하나인 ‘EBU 라이브 스페셜’은 한달에 한번씩 전국의 클래식 음악 동호회와 감상실 등을 직접 방문, 최신 위

성 중계 음악회를 함께 감상하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프로그램 진행자 정준호(사진)씨의 해설로 열리는 이번 감상회에서는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국립 프랑스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교향곡 25번’과 살리에르의 ‘비밀이 밝혀지는 오리로파 중 발레음악’, 다니엘 바렌보임이 협연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을 DVD와 CD로 감상한다.

녹음된 내용은 오는 4월 4일 전국 방송된다. 문의 062-222-84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대 영산강 유역 유리 가공 흔적

국립광주박물관, 나주 장동리 패총서 유리질 찌꺼기 발견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수문 패총 조개무지(패총·貝塚)에서 유리질 찌꺼기인 슬래그(slag)가 발굴돼 초기 철기시대에 장인 집단이 운영하는 유리 공방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절을 칠 때 쓰는 동물뼈인 절뼈(복골·卜骨)가 함께 발견, 영산강 하류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곳에서 유리를 만들어 타지역과 교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18일 “기

원후 1~2세기 시대의 유적으로 보이는 수문 패총에서 아이 주먹 만한 크기의 유리질 슬래그·골각기·복골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현종 관장은 “복골은 항해하는 선박의 안장을 기원하는 제사 의식에 사용되기도 했다”면서 “물길을 이용해 유리제품을 타지역으로 내다 파는 등이 일대를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페론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가 (재)홋카이도 문화재단과 국제문화교류협정을 맺었다.

오건탁 관장은 지난 12~14일 일본 홋카이도 방문, 홋카이도 지역과 연극, 음악,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교류를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두 단체는 홋카이도 근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샤갈의 작품을 포함한 인상파 작품 100여점을 선보이는 인상파전의 광주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홋카이도 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일본 북관화 200점을 전시하는 우키요에전과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홋카이도 눈축제에 광주 지역 작가를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

다.

또 오는 11월 홋카이도 콩카리노 극장에서 광주 지역 극단의 초청 공연을 열고 홋카이도 시민의 축제에 성악가와 국악인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위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삼로로 축제 참가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인상파전 등은 광주시립미술관과 개최 타당성 여부와 예산 확보 등에 관해 공동 논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술관은 18일 홋카이도 미술관과 무료 대여 가능 소장품 목록을 문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 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아트극장거리 ▶예매 1544-0600

M관 10,000 BC (15세)

2관 추격자-디지털 (18세)

3관 벤디지포인트 (15세) /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4관 바보 (12세) / **마이뉴파트너** (15세)

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6관 추격자 (18세)

7관 마이블루베리나이츠 (12세) / **허밍** (12세)

8관 10,000 BC (15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꽝주점 무료팝콘 행사기 종료했습니다.

• 이프류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료 부과

• 흥행 예매 1544-0600

• 흥행 예매 1544-0600